

그 이 의 리 상

작사, 작곡 장조일

1. 우리 얼마나 바라고 소원했던가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내 조국 강성의 꿈
수령님 념원하신 그 리상
장군님 꽃피우신 그 리상
아 내 조국땅에 현실로 펼쳐진다
2. 우리 고난의 그날에 피눈물 삼키며
내 나라 내 조국 빛내리 불타던 그 맹세
수령님 념원하신 그 리상
장군님 꽃피우신 그 리상
아 내 조국땅에 현실로 펼쳐진다
3. 총대를 높이 들고서 온 세상 굶어보며
찬란한 미래를 맞이한 선군의 내 조국
수령님 념원하신 그 리상
장군님 꽃피우신 그 리상
아 내 조국땅에 현실로 펼쳐진다

온 나라의 축복속에 래여난 새해의 첫 세쌍둥이

【평양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인민의 행복이 넘치고 찬란한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우리 조국에 만사합의 기쁨을 더해주는 경사가 있다.

평양산원에서 1일 0시 올해의 첫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딸세쌍둥이의 어머니는 로존옥녀성이며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군관이다.

뜻깊은 새해 첫날에 태어난 애기 (첫째 2.02kg, 둘째 1.89kg, 셋째 1.99kg)들은 보육기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

지난해 10월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의료집단의 깊은 관심속에 치료를 받아온 세쌍둥이의 어머니는 지금 태대자산모들에게 베푸는 당의 은정에 의하여 보약제를 쓰며 최상의 의료상방조를 받고 있다.

모든 녀성들이 곱마운 무상치로제의 혜택속에 사회주의복을 누리는 현실을 놓고 산모와 가족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어머니로 모시고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산원의료일군들과 애기아버지가

부부하는 부대군인들은 대고조의 더 큰 승리로 만복이 꽃피날 선군조선의 흥하는 정조를 알리며 첫 고성을 울린 세쌍둥이의 소식은 온 나라의 기쁨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행복둥이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었다.

세쌍둥이의 부모들은 인민의 복리를 우선시, 절대사하고 모든 혜택을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를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대한 장엄한 선언이다.

새해의 첫아침부터 한없는 그리움과 흥모의 대하가 금수산기념궁전과 나라의 곳곳에 모셔진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으로 끝없이

백두성산에 선군조선의 번영을 축복하는

신 비 경 이 펼쳐졌다

【평양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주제 99 (2010)년 1월 1일 아침 신비한 자연현상이 펼쳐졌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가 관측한 데 의하면 백두산의 봉우리들과 천지호반, 하늘가에서 천변만화의 조화가 일어났다는것이 밝혀졌다.

초당 50m이상으로 강하게 몰아치던 북서풍이 정월초하루의 벽두부터 점차 멎으면서 날씨는 잠잠해졌다.

레네가 없는 강추위가 지속되던 백두산의 기온은 이날 아침 -30℃를 기록하여 이 지대의 날씨가 비교적 온화하였으며 하늘은 류달리 맑게 개어 별들이 총총히 반짝이었다.

새날의 령명이 밝아오기 전까지 백두산의 하늘가에서는 온밤 환한 보름달이 떠서 시경이 기상적으로 제일 밝은 10등급을 기록하였다.

해돋기때 《새별》로 불리우는 금성이 천지상공에서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듯 천지에서 얼음이 갈라리지는 소리가 새벽공기를 깨치며 분화구벽을 울리었다.

대기온도와 얼음밀 물온도의 차이로 하여 얼음이 갈라리지며 내는 요란한 소리가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계속되었다.

웅장한 천지의 지심을 뒤흔드는 호랑이의 포효와 같은 소리에 잇달

아 장경들이 맞부딪치는것과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눈덮인 령봉마다에 메아리쳤다.

변이 난 뜻깊은 해를 보내고 또 다시 혁명적대경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번혁의 해 2010년의 첫아침 7시 38분에 백두산의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순간 백두산의 216개 봉우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찬란한 아침해살을 받은 망망한 천리수해의 설경은 성산의 장쾌한 경관을 한껏 돋구었다.

오늘 9시경부터 다시 강풍이 휘몰아치자 장군봉과 향도봉, 해발봉을 비롯한 봉우리들에서 수백m의 눈사태가 천지호반으로 폭포치듯 쏟아지며 백설의 축포와도 같이 환

희로운 절경을 이루었다.

백두산의 또 하나의 자랑인 온천들도 희한한 경치를 펼쳐놓았다.

천지호반의 온천물에서 뜨거운 것이 피어올라 레네에 불수 없는 하얀 서리꽃이 봉우리들에 뒤덮인 백두산의 용자는 마치 백전로장의 기상과 위용을 방불케 하며 신비경애로 이끌었다.

희망찬 새해의 첫날에 일어난 천지조화를 종합분석하면서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힘차게 열어제끼며 사회주의의 문은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는 김일성조선의 위창찬란한 미래를 조종의 산 백두성산도 열렬히 축복해주는것만 같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고있다.

신 심 과 락 관 에 넘 쳐

새 해를 맞이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희망찬 새해 주제 99 (2010)년을 새로운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뜻깊게 맞이하였다.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진 새해풍경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변들이 련이어 터지고 우리의 리상이 실현되는 해로 조국청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영예를 떨쳐갈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희열과 망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이 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웁니다.》

물결쳐갔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며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오늘의 행복찬 생활을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끝까지 받들어갈 뿐만아니라 맹세를 다지며 수령님께 삼가 새해인사를 드리었다.

이렇게 밝아온 새해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더 큰 기적과 비약을 일으켜가는 각지 근로자들의 혁신과 위훈의 소식으로써 더욱 뜻깊게 흘러갔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지의 전력생산자들은 나라의 동력소스를 지켜선 공지드높이 새해 첫날부터 전력증산의 불길들을 새 차가 지퍼올렸으며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철도수송전사들도 두 줄기 궤도를 더 높은 수송성가로 수놓아 갔다.

일리마다에서 힘있게 울려 퍼진 창조의 동음은 그대로 당장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혁명적대경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교야

명절의 밤은 밤대로 이제로 왔다.

환희롭게 펼쳐진 야경과 여러가지 축등과 장식물들로 단장되고 불꽃은 창가마다에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쳐흐르는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인민은 온 한해를 머나먼 선군장정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함없는 그리움과 향모의 정으로 잠 못 이루며 당장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야 말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

본사기자 리남호



— 중 구 역 에 서 — 신 총 혁 적 음

인 민 은 영 원 히 잇 지 않 으 리

노래 《돌과하라 최첨단을》에 깃든 력사의 사연을 더듬으며

노래가 울린다. 더

는부신 전변과 더 큰 행복을 약속하며 내 조국에 밝아온 희망찬 새해의 하늘가에 뜻깊은 노래가 울려 퍼진다.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램에 따라 만드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자랑 우리 식 CNC기술 ...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자랑인 CNC기술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시대적명목으로 태어나 사람들의 심장을 새차게 틀어잡은 노래 《돌과하라 최첨단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누구나 이 노래를 사랑한다. 초소와 마을, 일터와 학교에서 이 노래는 언제나 높이 울리고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애국의 피는 더욱 끓여지고 온몸에 힘이 솟아나고 이 노래를 부르면 리상과 포부가 더 커진다.

하지만 우리 다 알고있었다. 이 노래가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꿈과 리상을 주고 더 큰 승리의 신심과 망만을 줄 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며 어떤 뜨거운 추억에 잠기시였는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인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서 탄광지원은 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새해 석탄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기 위하여 각지의 수많은 단위들과 근로자들이 탄광

의지이며 수령님의 전사, 제

자신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리입니다.》

지난해말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자신께서는 노래 《돌과하라 최첨단을》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다고, 그 노래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되살려준다고 절절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성스러운 추억이 우리의 가슴과 가슴을 뚫고 두드린다. 우리의 CNC기술, 정녕 그것은 어떻게 마련된것이였는가.

영원히 잊지 못할 날들이 다시금 눈앞에 떠오른다. 민족의 어머니를 잃은 대국상에 자연재해까지 덮쳐서 시련과 난관이 겹잡혔던 준엄한 1990년대 중엽, 공장들이 하나둘 숨죽여버리고 한층의 쌀마저 귀하던 그 어려운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계공업의 CNC화를 더욱 다그치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었다.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나 보다 가슴아프게 여기시며 인민들생각에 환경기의 속도 같아 잡수시던 바로 그러한 시기 우리 장군님께서 기계공업의 최첨단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심하시자니 얼마나 생각이 많

았을지 모르겠다. 국가품질감독국에서는 탄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 석탄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것을 바라면서 자기들의 뜨거운 지성이 담긴 많은 지원물자로 부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회안탄광 탄부들의 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평안남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

으셨으리라.

그러나 조국의 레일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념원하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이 땅위에 일떠세우시기 위하여는 남모르는 고행의 길을 곳곳이 헤쳐나가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자리라는 신념의 노래,

바로 그처럼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짊어지고 싸움 피우시고 력사의 눈보라, 비바람속에서 문없이 땀을 뿌리시며 애써 가꾸어 마침내 안아오신 앞날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CNC기술인 것이다. 다름아닌 우리 장군님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 아름다운 희망과 철칙의 신념, 위대한 노력과 불굴의 투쟁으로 이루어진것이 오늘의 위대한 사면-침단판공이었다.

참으로 우리 식 CNC기술이 아랄로 위대한 령도자의 눈물겨운 애국헌신의 산물이며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할수 있는 력사의 기적, 일대 혁명이다.

백두명장의 숭고한 조국애와 불굴의 의지, 고결한 인생관의

자각을 안고 탄광지원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도재관소와 도미술창작사, 부창화력건설련합기업소에서는 탄광지원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석탄생산에 필요한 많은 소공품, 여러가지 후방물자 등을 도안의 탄광들에 보내주어 탄부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또 하나의 상징인 선군조선의

CNC기술! 시대의 명목, 시대의 진군가인 노래 《돌과하라 최첨단을》은 우리 식의 CNC기술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전 인민적인 찬가이며 위대한 령도자의 구상을 높이 받들어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려는 주체조선의 비창한 결심과 의지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노래야말로 우리 혁명의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고 희망찬 앞날을 확신시켜주는 정말 좋은 노래이라고,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을 되살려주는 노래에서 더욱 감명깊다고 그처럼 뜨겁게 말씀하신것이 아니라,

조선의 2010년은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질 희망찬 해이다. 오늘 나라의 곳곳에서 펼쳐지고있는 첨단과학의 자랑찬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굴지의 기계공업기업지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에서 높이 울려 퍼진 CNC화성곡의 만세소리는 무엇을 말하고있는가.

그것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조국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낸다는것을 파시하고있다.

도송배전부와 도통계국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로탄광을 도와주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석탄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한 데로 하여 탄부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또한 도내맹원들이 성실성의 것 마련하여 보내준 수많은 지원물자들은 덕천지구탄광련합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뜻깊은 새해가 밝아온 이 아침도 천리마재련합기업소에 《정춘기계》, 《철단기계》로 불리우는 CNC화된 1만t프레스가 주체공업의 기상을 파시하며 기운차게 돌아가고있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 발아래 수십년전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발전된 몇개 나라밖에 만들지 못하던 기상관념을 깨뜨리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자력갱생의 기념비적작조물인 1만t프레스, 동체높이가 수m나 되고 하여 세계굴지의 특대형설비로 손꼽히는 이 프레스의 CNC화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이 이룩한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로 또.

강선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터진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새차게 울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을 침단들과의 결전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천리마의 고향 강선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나였을것인가. 우리는 천리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단 6개월동안에

있게 하였으며 탄부들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지원물자들도 보내주어 그들의 투쟁열의를 힘껏 북돋아주었다.

강원도의 한 기관에서 일하고있는 박성남동무와 그의 가족은 탄부들을 돕는것은 곧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물심방문으로 탄광을 지원하여 석탄생산의 불길을 더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탄광지원의 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조향선

1만t프레스의 CNC화를 실현하여 생산능력을 10배로 높였습니다. 이제는 강성대국건설에 필요한 그 어떤 대형단조품도 팡 팡 찍어낼수 있습니다.》

공중 - 지성을 흔드는 1만t프레스의 동음을 안고 영원히 잊을수 없는 노래가 더 높이 울려간다.

CNC는 주체공업의 위력 CNC는 자력갱생의 본래 장군님 가리키는 길따라 돌과하라 최첨단을 아 아리랑 아리랑 민족의 자존심높이 과학기술강국을 세우자 행복이 파도쳐온다

이 노래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랑한다. 우리는 이 노래에 깃든 사연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언제나 이 노래를 높이 부를것이다. 이 노래 높이 부르며 새해의 전투장, 침단들과의 전투장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이며 이 노래로 침단들과의 합성을 더 높이 터 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나가는 우리에게는 돌파하지 못할 침단이란 있을수 없다.

《돌과하라 최첨단을》! 우리는 이 노래와 더불어 비약하고 또 비약하여 2012년에 기어이 내 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것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한 보이락작업이며 제기되는 보수공제를 3일이나 앞당긴 제 판작업만, 지난 기간에는 8일이 걸려야 하던 대상보수를 3일동안 끝낸 미루보수작업, 이들만이 아니었다.

청년전장과 구조물직장, 압연직장과 운영보수직장, 제관직장과 운수직장 등 기업소의 그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발걸음속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지 않았던가.

하지만 민족을 모르는 이들은,

2009년의 전진속도에 또 한번 힘찬 박차를 가하며 2010년의 첫 진군길에 떨쳐나선 미더운 부창의 전력생산자들,

하늘들이 치웃은 골목마다에서 끊임없이 라레쳐오는 흰 연기가 열을 내뿜으며 증기를 팡팡 생산하는 보이락들, 생산된 전기를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보내주는 전기직장, 기업소구내를 들다나놓는 방송선전차의 노래소리 어디서나 새해충진군에 떨쳐나선 부창의 여선 승결이 느껴진다.

발전기들이 만부하를 견뎌 단직장에서 우리는 부직장장 김재선동무를 만났다.

《력사적인 올해의 진군길에서도 우리는 나라의 생명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갈것입니다.》

그의 말을 확증이라도 하듯 전력계의 바늘은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발전기의 동음은 더욱 고르게 울려 퍼졌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는데서 우리는 또다시 승리의 신심높이 새해전투에 떨쳐나섰습니다.》

그 말을 되새기는 우리의 눈앞에 눈부신 기적과 혁신으로 이어지던 부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번뜩이는 날과 달이 섬팡처럼 번뜩이며 울려갔다.

중진의 24시간 보수공제를 2시간동안 끝내는 기적을 창조

부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경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굴지의 대아름기 지검을 찾으며 새해전투의 거세찬 불길을 지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선 부창의 영웅적로동계급,

《우리 부창부터 끓여야 한다!》

이곳 로동계급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며 자기의 무거운 책임과 중대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

나라의 생명선! 부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나라의 생명선이라고 불러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믿음과 부창이 끓여야 온 나라가 활기를 띠고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대를 이곳 로동계급이 순간이라도 잊고 살았던가.

책임일군들로부터 나아낸 처녀운전들이 이르기까지 온 기업소종업원들이 새해 첫날부터 새로운 각오를 안고 전력생산전투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기업소책임일군인 최보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부창의 전력생산자들은 지난해 8월의 무더위를 보내주어 그들의 투쟁열의를 힘껏 북돋아주었다.

강원도의 한 기관에서 일하고있는 박성남동무와 그의 가족은 탄부들을 돕는것은 곧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물심방문으로 탄광을 지원하여 석탄생산의 불길을 더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탄광지원의 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조향선

있게 하였으며 탄부들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지원물자들도 보내주어 그들의 투쟁열의를 힘껏 북돋아주었다.

강원도의 한 기관에서 일하고있는 박성남동무와 그의 가족은 탄부들을 돕는것은 곧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물심방문으로 탄광을 지원하여 석탄생산의 불길을 더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탄광지원의 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조향선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초초병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는데서 우리는 또다시 승리의 신심높이 새해전투에 떨쳐나섰습니다.》

그 말을 되새기는 우리의 눈앞에 눈부신 기적과 혁신으로 이어지던 부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번뜩이는 날과 달이 섬팡처럼 번뜩이며 울려갔다.

중진의 24시간 보수공제를 2시간동안 끝내는 기적을 창조

본사기자 장은영

